

신장이식 500예의 임상적 고찰

황은아, 강민경, 강미정, 박경대, 한승엽, 박성배, 김현철 계명의대 신장내과, 신장연구소

1982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만 17년 5개월에 걸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신이식팀이 시행한 500예의 신장이식환자들의 임상성적을 보고하고자 한다.

전체 500예의 신장이식환자의 평균연령은 33.4 ± 10.7 세 (최단 6세, 최장 67세)였고 남자 333명, 여자 167명으로 남녀비는 1.99:1이었으며 신이식 공여자의 평균연령은 38.5 ± 12.7 세 (최단 13세, 최장 67세)였다. 신장이식환자들의 평균 추적기간은 73.3 ± 50.4 (최단 0.2개월, 최장 217개월)이었다. 신이식 수여자와 공여자의 관계는 혈연관계가 319예(63.8%), 비혈연관계가 120예(24.0%), 사체 신이식 61예(12.2%)였으며 재이식을 시행한 예가 19예(3.8%)였다. 원인신질환은 만성사구체신염이 340예(6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혈압이 46예(9.2%), Ig A 신증 29예(5.8%), FSGS 27예(5.4%)였다. 신장이식후 면역억제요법은 cyclosporine을 기초로 한 면역억제요법이 448예(89.6%)로 대부분이었고tacrolimus를 기초로 한 면역억제요법이 42예(8.4%), azathioprine과 steroid를 면역억제요법으로 받은 환자가 10예(2.0%)였다. 급성 거부반응은 142예(28.4%)에서 있었고 발생기간은 3개월이내가 89예(62.7%) 3개월이후가 53예(37.3%)있었으며 급성거부반응이 2회이상 발생한 경우가 21예 있었다. 전체적인 환자의 생존율은 1년 생존율 97.3%, 5년 91.8%, 10년 87.2% 였으며 이식신 생존율은 1년 94.8%, 5년 71.0%, 10년 45.3% 였다. 신이식후 외과적 합병증은 신주위 혈종이 109예(48.2%)로 가장 많았고 일시적 수신증이 55예(24.4%), 림프류, 요로폐쇄가 각각 28예(12.5%)였다. 감염성 합병증은 세균성감염이 126예(44.7%), virus 감염이 119예(42.2%), Fungus 34예(12.1%)였으며 virus 감염중에는 CMV 감염이 38예로 가장 많았다. 이식신 실패가 143예에서 있었는데 그 원인으로 만성거부가 69예(48.3%), 치료 불순종 17예(11.9%), 급성거부가 16예(11.2%)순이었으며 환자 사망으로 인한 경우가 26예(18.1%)를 차지하였다. 신이식후 47예에서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으로는 동맥경화성 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이 15예(31.9%)로 가장 많았고 감염 14예(29.8%), 악성종양 4예(8.5%) 순이었다.

신이식환자에서 발생한 만성간염과 간암에 관한 고찰

최범순, 김형욱, 채은영, 신미정, 박주현, 양철우, 김용수, 장윤식, 방병기 가톨릭의대 내과학교실

1980년 1월 15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강남성모병원에서 신이식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은 1122예(azathioprine 81예, cyclosporine 1041예)를 대상으로 만성간염과 간암의 발생율을 조사하였다.

1. 1122예 중 9예(0.8%)에서 간암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8예(89%)가 B형간염과 관련하여 간암이 발생하였으며 1예(11%)가 B형 및 C형 간염과 관련 없이 간암이 발생하였다.
2. HBsAg 양성인 117예(10.4%)이었으며 이중 1년 이상 생존한 101예 중 67예(66.4%)가 건강보급자이었으며 34예(33.5%)에서 만성간염으로 이행하였다. 만성간염 환자 중 12예(35.3%)가 간경화로 이행하였으며 이중 6예(50%)에서 간암이 발생하였고 1예(2.9%)에서는 직접 간암으로 진행하였다. 건강 보급자인 67예에서는 1예(1.5%)에서 간암이 발생하였다.
3. HCV Ab 양성은 측정가능 한 716예 중 91예(12.7%)이었다. 이중 13예(14.3%)에서 동시에 HBsAg 에 양성을 보였으며 HCV Ab만 양성인 경우는 78예(85.7%)이었다. 1년 이상 생존한 74예 중 54예(70.3%)가 건강보급자 이었으며 22예(29.7%)에서 만성간염으로 이행하였다. HCV Ab 양성인 예에서 간경화나 간암으로의 이행은 없었다.
4. 외래 추적관찰 중 조기에 발견한 4예에서 TACE, 항암요법 및 외과적 절제술로 치료하여 평균 17.8개월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이중 2예가 생존해있다. 발견당시 이미 간암이 많이 진행된 5예에서는 평균 5.2개월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이중 1예가 생존해있다.

HBs Ag 양성인 신이식 환자에서 만성간염으로 이행할 경우 간암의 발생율이 높으며 주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조기에 발견할 경우 비교적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